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MRTC 통계브리프 | No. 2024-12

국내 유학생의 졸업 후 체류 및 취업 의사

박민경 전문연구원
최서리 이민데이터센터장

이번 통계브리프는 2017년, 2020년, 2023년「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유학생 부가항목을 활용하여 유학생들의 국내 계속 체류 및 취업 의사 추이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검토한다. 특히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국내 체류와 취업 의사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국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경우 교육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에 대한 선호가 있었다. 분석 기간 중 공학 전공 유학생의 체류 및 취업 의사가 크게 상승하였고, 장학금 수혜와 아르바이트 경험이 체류 및 취업 의사와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유학생 부가항목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통계분석 대상 및 내용

지난 2023년 8월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어학연수생 포함) 유치를 목표로 하는「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만 해도 그 수가 10만 명이었고, 13년만인 2023년에 18만 명에 도달하였는데, 4년 사이에 또 다른 12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유학생 재정능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한국어 입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2] 한국에서의 유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유학생들이 방학 중에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도 인턴십을 하도록 하고,[3]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해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위기와 지역 간 불균형(예, 수도권-비수도권) 등의 문제에

1) 교육부 보도자료.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08.16.)
2)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2023.06.23.)
3) 기존에는 학기 중에 전공과 연계한 인턴십 허용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민정책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유학생이 다양한 정책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4년 9월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를 통해 지방대학 및 인구감소지역에 '인재'를 유입시켜 인구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4] 연속선상에서 유학생의 구직, 혹은 기업의 유학생 구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확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09년 이래 운영되어 온 유학생 채용박람회가 최근에는 기존의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나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서울시,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라는 명칭으로 연 1회 규모 있게 운영되고 있다.[5] 그렇다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들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졸업 이후 한국에 머물며 취업을 희망할까?[6]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유학생의 특성별로 국내 계속 체류 및 취업 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부가항목을 활용하였다.[7] 유학생(D-2, D-4-1, D-4-7)[8] 부가항목에 대한 조사는 2017년, 2020년, 2023년 총 3회 실시되었으며, 연도별 응답자 수는 2017년 886명, 2020년 2,087명, 2023년 2,705명이었다. 본 통계브리프에서는 어학연수 및 비학위과정을 제외하고 학위과정에 있는 유학생만을 분석하기 위해, 주전공을 '어학연수' 또는 '기타'로 응답한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759명, 2020년 1,783명, 2023년 2,39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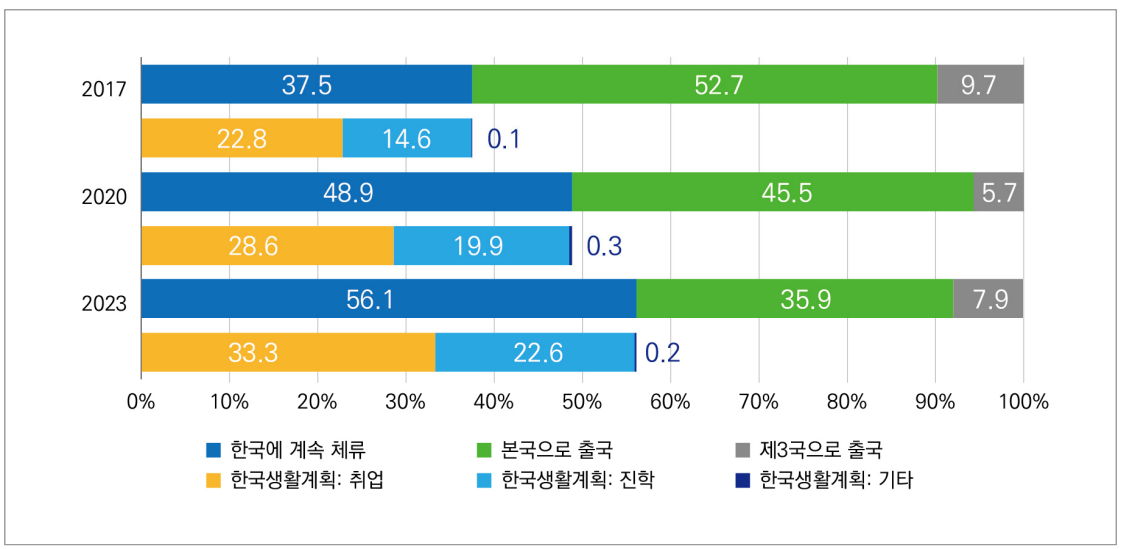
유학생의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 관련 추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유학생 응답을 분석 한 결과, 졸업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2017년 37.5%였던 체류 희망 비율이 2023년에는 56.1%로 약 18.6%p 증가했다.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유학생 중 취업을 희망하는

4) 교육부 보도자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023.09.26.)
5) 2024년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위해 참가한 기업은 총 105개였으며, 이 중 32개(30.5%)는 제조·생산 기업, 29개(27.6%)는 IT 기업이었다.
6) 송해련(2022)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유학생이 한국학 전공자이거나 유학 동기가 한국의 우수한 교과과정인 경우 한국에 체류할 의사가 높은 반면, 한국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중국 출신, 또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국 유학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국 귀국 의사가 높다고 밝혔다.
7)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는 외국인 고용조사를 2017년 확대 개편한 조사로, 매년 만 15세 이상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8) 법무부 통계에서 유학생은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만을 의미하지만,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유학생 부가항목 조사 대상에는 유학(D-2) 뿐만 아니라 한국어 연수(D-4-1)와 외국어 연수(D-4-7) 자격 소지자도 포함된다.
9) 이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표본 크기이며, 분석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비율과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모두 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취업 희망 비율은 2017년 22.8%에서 2023년 33.3%로 10.5%p 증가했으며, 진학 희망 비율은 2017년 14.6%에서 2023년 22.6%로 8.0%p 증가했다.

〈그림 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계획 추이



자료: 법무부·통계청「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각 연도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표 1〉 참조). 2023년 기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국내 취업 희망자 중 18.7%가 이 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했다. 그다음으로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18.5%가 이 업종 취업을 희망하였다. 반면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업종은 농업·임업 및 어업으로 1.1%만이 이 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했다. 그 뒤를 이어 광업·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2.6%를 차지했다. 2017년 대비 2023년 조사 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에 대한 유학생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고(6.4%p 상승, 순위 6계단 상승), 둘째,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려는 비율이 크게 하락했으며(5.3%p 하락), 셋째,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도 크게 감소했다(순위 5계단 하락).

〈표 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희망 업종

	2017		2020		2023		비율증감 ('17→'23)	순위변동 ('17→'23)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농업·임업 및 어업	1.7%	11	1.0%	13	1.1%	13	-0.6%p	▼2
광업·제조업	5.2%	6	2.0%	11	2.6%	11	-2.6%p	▼5
건설업	3.5%	9	2.5%	9	2.6%	11	-0.8%p	▼2
도소매업	5.8%	5	4.9%	7	5.1%	6	-0.6%p	▼1
숙박 및 음식점업	3.5%	9	12.7%	3	9.9%	3	6.4%p	▲6
금융 및 보험업	10.4%	3	5.1%	6	5.1%	6	-5.3%p	▼3
교육 서비스업	21.4%	1	19.4%	1	18.7%	1	-2.7%p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	11	1.4%	12	2.8%	10	1.0%p	▲1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6.4%	4	7.1%	5	7.9%	4	1.5%p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7%	2	19.4%	1	18.5%	2	-1.1%p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7%	11	2.4%	10	4.3%	9	2.5%p	▲2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5.2%	6	4.3%	8	4.6%	8	-0.6%p	▼2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5.2%	6	8.6%	4	6.0%	5	0.8%p	▲1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

주 1. 비율은 국내 취업 희망자 중 해당 업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유학생의 비율을 의미함

2. '기타'는 순위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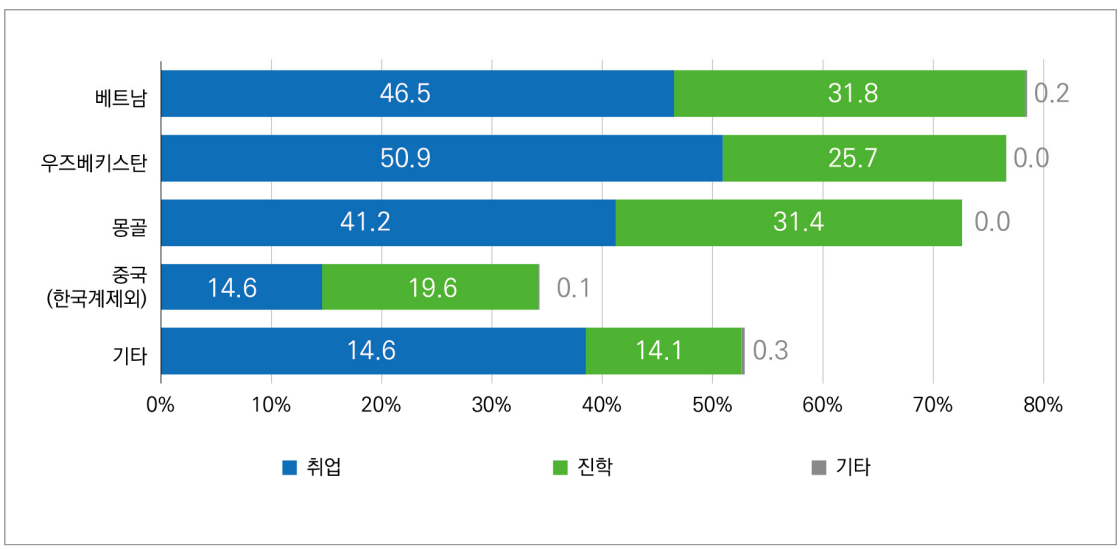
국적별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

〈그림 2〉는 유학생의 국적에 따른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를 보여준다. 체류 희망 비율은 4개국(중국(한국계 제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 베트남 출신 유학생에게서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 희망 비율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에게서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출신 유학생의 체류 및 취업 의사는 4개국 외 기타 국적 유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한국계 제외) 출신 유학생의 체류 희망 비율과 취업 희망 비율은 각각 34.3%와 14.6%로 가장 낮았다.[10] 〈그림 3〉에 나타난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 외 국적을 가진 유학생의 체류 및 취업 의사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중국인 유학생의 체류 의사는 거의 변동이 없었

10)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의 공통항목을 살펴보면, 유학생(D-2, D-4-1, D-4-7) 중 한국계 중국인 비율은 2017년 0.2%(886명 중 2명), 2020년 0.5%(2,094명 중 11명), 2023년 0.1%(2,705명 중 4명)로 매우 적다. 따라서, 한국계 중국인 유학생은 기타 국적 유학생에 포함시켜도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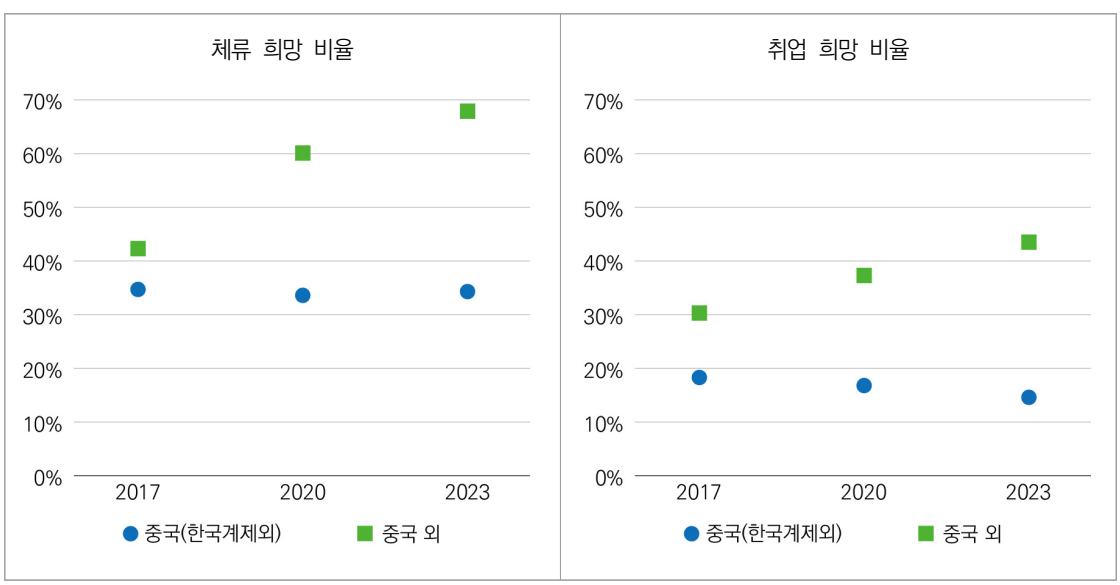
고 취업 의사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유학생 간 체류 및 취업 의사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 국적에 따른 한국 체류 희망 비율 (2023)



자료: 법무부·통계청「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3

〈그림 3〉 국적에 따른 한국 체류 및 취업 희망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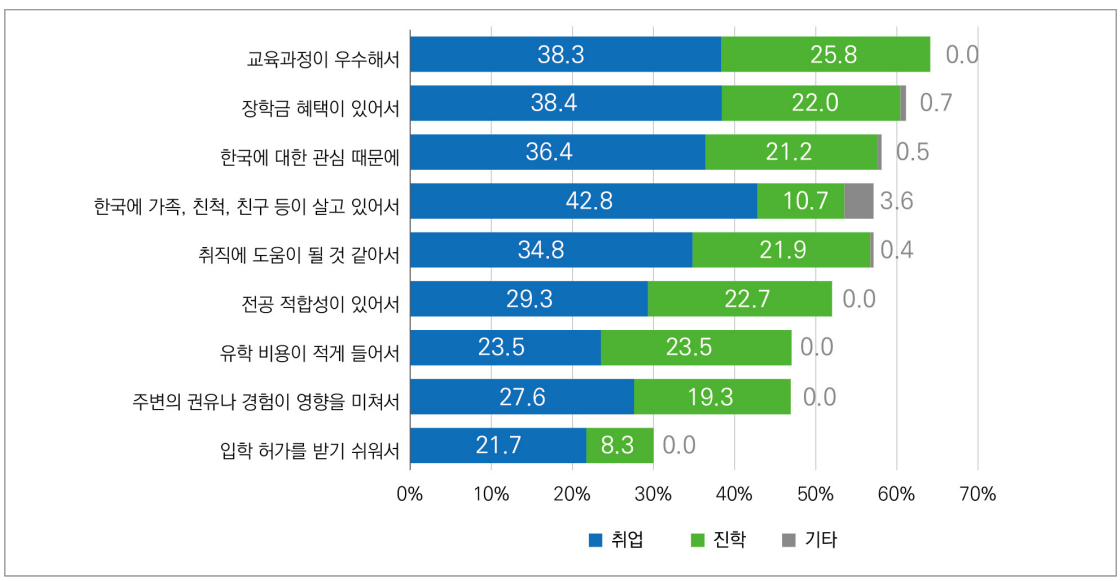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통계청「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각 연도

유학 동기 및 전공에 따른 국내 체류·취업 의사

〈그림 4〉는 유학 동기에 따른 체류 및 취업 의사를 보여준다.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가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인 경우에 체류 희망 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에 가족, 친척, 친구 등이 살고 있어서'인 경우 취업 희망 비율이 42.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입학 허가를 받기 쉬워서' 한국 유학을 선택한 경우, 체류와 취업 희망 비율이 각각 30.0%, 21.7%로 가장 낮았다. 이는 단순히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유학을 선택한 유학생들의 경우 국내 체류나 취업 의사가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4〉 한국 유학 결심 사유에 따른 한국 체류 희망 비율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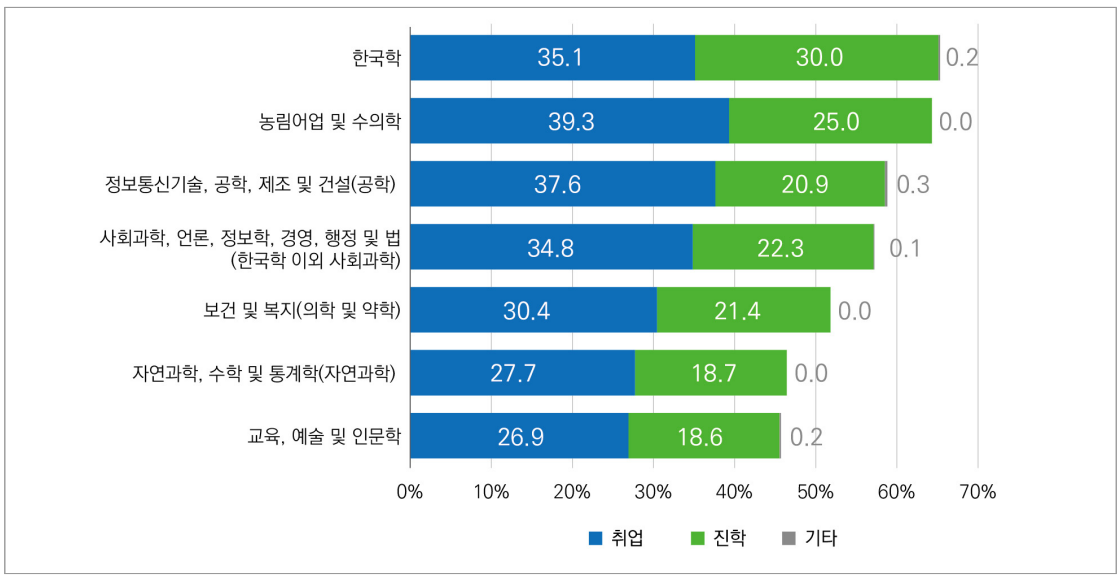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23.
주 1. 전공 적합성이 있어서: 한국에서의 전공과정이 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 + 공부하려는 분야가 한국과 관련된 것이어서
2. 주변의 권유나 경험이 있어서: 가족, 친인척, 친구, 교수 등의 권유로 + 주위에 한국에서 유학한 친구, 동료 등이 있어서
3. 한국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한국이 친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 때문에

〈그림 5〉는 한국 대학에서의 전공에 따른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를 보여준다. 체류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전공은 한국학으로, 65.4%가 졸업 후에도 국내에 머물기를 희망했다. 취업 희망 비율이 높은 전공은 농림어업 및 수의학(39.3%),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37.6%), 한국학(35.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관측치 수가 적은 농림어업 및 수의학, 보건 및 복지(의학 및 약학)를 제외한 전공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학 전공 유학생의 체류 및 취업 희망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한국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12]

11) 2017년과 2023년 사이 이들의 체류 희망 비율은 29.0%p 증가하였고(29.7% → 58.7%), 취업 희망 비율 또한 14.8%p 증가(22.8% → 37.6%)하여 두 항목 모두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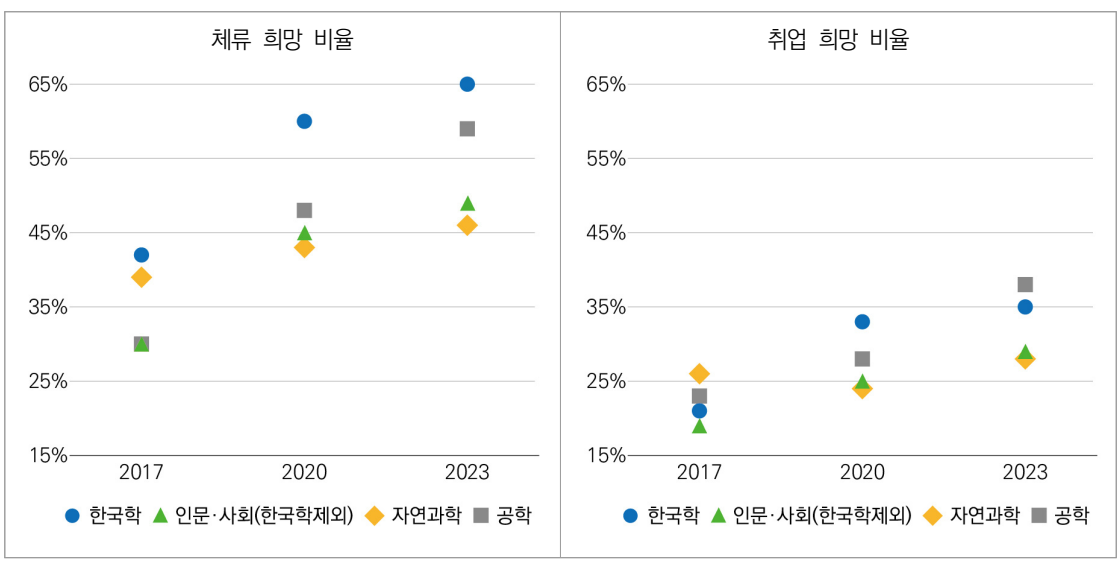
공학 전공자의 국내 취업 의사의 상승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5〉 전공에 따른 한국 체류 희망 비율 (2023)



자료: 법무부·통계청「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3

〈그림 6〉 전공에 따른 한국 체류 및 취업 희망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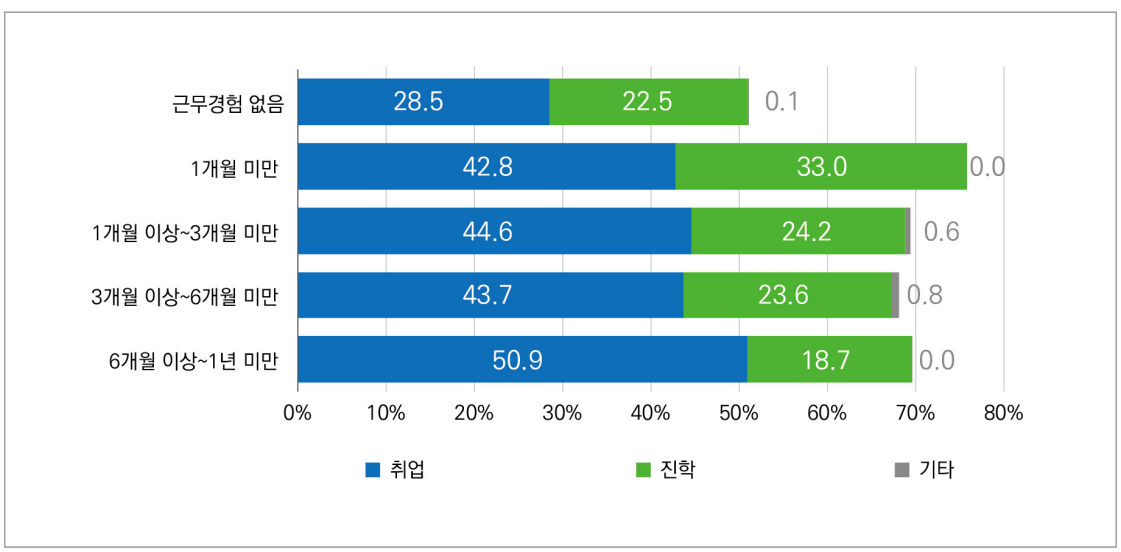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통계청「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각 연도
주: 인문·사회(한국학제외): 교육, 예술 및 인문학 + 사회과학, 언론,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한국학 이외 사회과학)

12)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을 확대 개편하여 2022년 1,335명이었던 이공계 석·박사 수혜인원을 2027년까지 2,700명까지 늘리고자 계획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국내 체류·취업 의사

〈그림 7〉은 한국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근무한 경험에 따른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를 보여준다. 국내 근무 경험이 있는 유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유학생들에 비해 국내 체류 및 취업 희망 비율이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더 높게 나타났다.[13] 한편, 국내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은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23.0%,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 22.5%로, 비교적 차이가 작았다. 〈그림 8〉에 나타난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020년, 2023년 모두 국내 근무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체류 및 취업 의사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일시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이동 제한, 고용시장 위축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분산분석 결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체류 및 취업 의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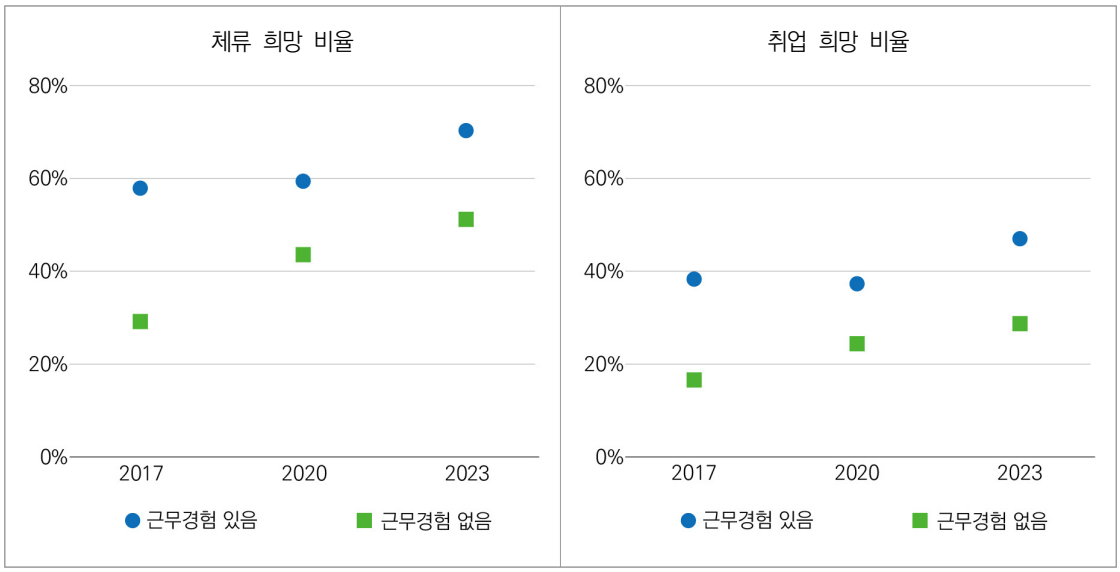
〈그림 7〉 지난 1년간 국내 근무 기간에 따른 한국 체류 희망 비율 (2023)



자료: 법무부·통계청「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3

13) 2023년, 지난 1년 간 국내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체류 희망 비율이 70.1%, 취업 희망 비율이 46.8%로 나타났으며, 국내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 체류 희망 비율은 51.1%, 취업 희망 비율은 28.5%에 그쳤다.

〈그림 8〉 지난 1년간 국내 근무 경험 유무에 따른 한국 체류 및 취업 희망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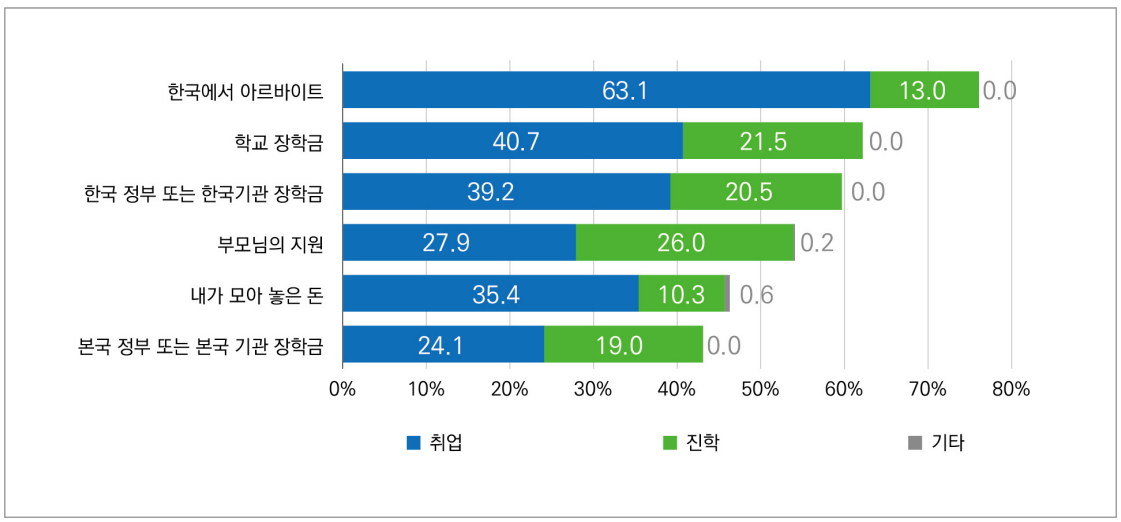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통계청「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각 연도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는 유학생들의 높은 체류 및 취업 의사로도 뒷받침된다. 〈그림 9〉는 학비 마련 방법에 따른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를 보여준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경우, 국내 체류 희망 비율과 취업 희망 비율이 각각 76.1%, 63.1%로 가장 높았다.[14] 〈그림 10〉의 추이를 보면, 학비를 주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하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학비를 조달하는 경우에 비해 2017년, 2020년, 2023년 모두 체류 및 취업 의사가 높았으며 특히 취업 희망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산분석 결과에서도 학비를 주로 아르바이트로 마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체류 의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취업 의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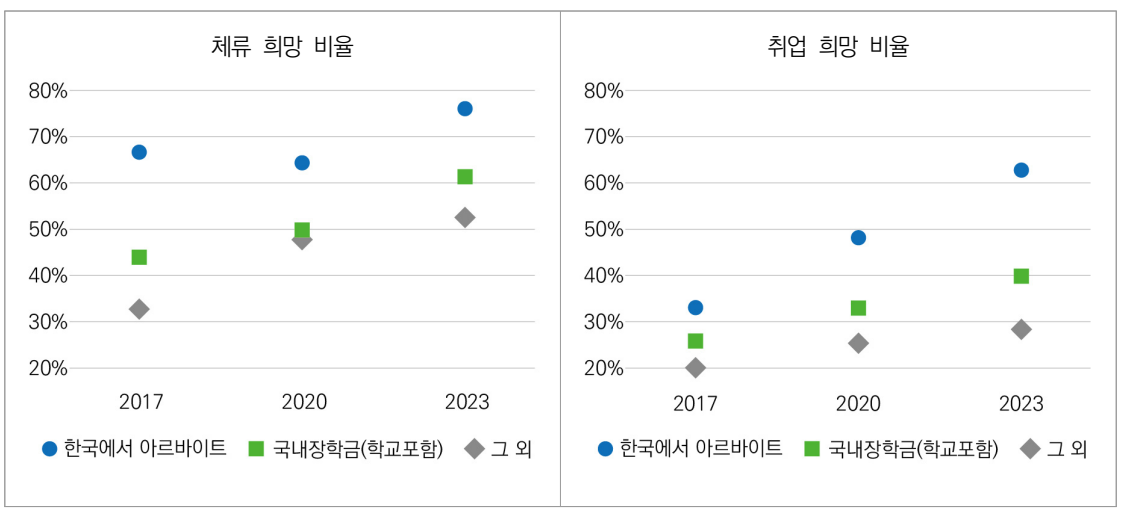
14) 국내 장학금(학교, 한국 정부 혹은 기관 장학금)으로 학비를 마련하는 경우, 본국 정부나 기관 장학금으로 학비를 마련 하는 경우보다 국내 취업이나 진학 희망 비율이 높다. 이는 '장학금 혜택이 있어서' 한국 유학을 결심한 집단의 높은 체류 및 취업 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4〉 참조).

〈그림 9〉 학비 마련 방법에 따른 한국 체류 희망 비율 (2023)



자료: 법무부·통계청「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23

〈그림 10〉 학비 마련 방법에 따른 한국 체류 및 취업 희망 비율 추이



자료: 법무부·통계청「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
주: 국내장학금(학교포함): 학교 장학금 + 한국 정부 또는 한국기관 장학금

국내 유학생의 졸업 후 체류 의사 통계분석의 정책적 함의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의 유학생 부가항목을 분석한 결과, 졸업 후에도 국내에 남거나 국내

에서 취업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유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제조업, 건설업보다는 교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 특성별로 졸업 이후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공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학 분야 전공자의 취업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수 이공계 인력의 선별, 유치, 정주를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법무부는 2023년 과학기술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 및 귀화 절차를 간소화한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15] 2024년에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포함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16]하는 등 이공계 인재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공계 유학생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공학계열 유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면, 정부와 유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내 유학 시 정부 또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장학금 혜택은 유학생들의 체류 및 취업 의사와 공통적으로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유학생 대상 재정지원 확대가 한국에 정주할 의사가 있는 유학생들을 유입시키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 8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GKS 사업 및 BK21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17] 이러한 재정지원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인재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면, 한정된 재원을 이들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이유로 한국 유학을 선택한 유학생들의 졸업 후 체류의사가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효율적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는 장기 체류 의사가 있는 유학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와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졸업 후 체류나 취업 의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학업-취업-정주의 경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한국어 능력과 학점, 학위 과정에 따라 주당 허용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현재 유학생의 취업은 제도권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즉, 절차가 번거로워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브리프의 2023년 분석 표본 2,393명 중 630명이 수입 목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중 253명만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10명 중 1명 만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고 근무한 유학생 347명 중 절반 이상인 189명은

15) 교육부 보도자료.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08.16.)
16) 법무부 보도자료.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2024.09.26)
17) 교육부 보도자료.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08.16.)

취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관리를 실효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 이러한 취업경험이 실제 졸업 후 유용한 경력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 보다는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브리프에서 사용한「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유학생 부가항목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통항목과 부가항목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자료에서는 국적이나 거주지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원격접근서비스(RAS)나 이용센터서비스(RDC)를 이용하면 부가항목과 공통항목을 병합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비용과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또한 체류자격 및 학위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서는 체류자격을 세분화하지 않고 D-2, D-4-1, D-4-7 자격 소지자를 모두 유학생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유학생의 현재 학위 과정이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며, 공통조사의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제언으로, 졸업 후 계획으로 한국 진학을 선택한 사람들의 진학 이후 국내 계속 체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문항 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별첨 1] 항목별 관측치 수 및 비율

		2017		2020		2023	
		관측치 수	비율 (%)	관측치 수	비율 (%)	관측치 수	비율 (%)
국적	중국(한국계제외)	475	62.6	756	42.4	837	35.0
	베트남	64	8.4	515	28.9	662	27.7
	몽골	32	4.2	99	5.6	167	7.0
	우즈베키스탄	188	24.8	82	4.6	124	5.2
	기타			331	18.6	603	25.2
전공	한국학	83	10.9	408	22.9	433	18.1
	교육, 예술 및 인문학	153	20.2	295	16.5	472	19.7
	사회과학, 언론,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 (한국학 이외 사회과학)	289	38.1	641	36.0	909	38.0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자연과학)	65	8.6	94	5.3	112	4.7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공학)	145	19.1	290	16.3	383	16.0
	농림어업 및 수의학	12	1.6	20	1.1	28	1.2
	보건 및 복지(의학 및 약학)	12	1.6	35	2.0	56	2.3
유학 결심 사유 (1순위)	교육과정이 우수해서	150	19.8	424	23.8	743	31.0
	전공 적합성이 있어서	269	35.4	557	31.2	686	28.7
	취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84	11.1	217	12.2	247	10.3
	입학 허가를 받기 쉬워서	30	4.0	47	2.6	60	2.5
	유학 비용이 적게 들어서	34	4.5	59	3.3	81	3.4
	장학금 혜택이 있어서	46	6.1	86	4.8	146	6.1
	주변의 권유나 경험이 영향을 미쳐서	72	9.5	211	11.8	192	8.0
	한국에 대한 관심 때문에	66	8.7	158	8.9	198	8.3
	한국에 가족, 친척, 친구 등이 살고 있어서	8	1.1	15	0.8	28	1.2
	기타	0	0.0	9	0.5	12	0.5
학비 마련 방법 (1순위)	한국 정부 또는 한국기관 장학금	113	14.9	190	10.7	288	12.0
	본국 정부 또는 본국 기관 장학금	31	4.1	47	2.6	58	2.4
	학교 장학금	162	21.3	363	20.4	548	22.9
	내가 모아 놓은 돈	18	2.4	171	9.6	175	7.3
	부모님의 지원	415	54.7	950	53.3	1,268	53.0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15	2.0	45	2.5	46	1.9
	대출	0	0.0	7	0.4	10	0.4
	기타	5	0.7	10	0.6	0	0.0
국내 근무 기간	근무경험 없음	536	70.6	1,183	66.3	1,763	73.7
	1개월 미만	46	6.1	74	4.2	91	3.8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50	6.6	136	7.6	157	6.6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8	6.3	135	7.6	119	5.0
	6개월 이상~1년 미만	79	10.4	255	14.3	263	11.0
계		759		1,783		2,393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
주: 주전공을 '어학연수' 또는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함.

참고자료

송해련. 2022.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 및 장기체류 의사 결정요인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5(3): 73-94.

통계정보

활용통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17, 2020, 2023
작성기관	법무부, 통계청
작성유형	지정통계/조사통계
공표주기	1년

집필자 | 박민경·최서리 **문의** | 02-3788-8031 **발행인** | 우병렬 **발행처** | 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일** | 2024년 10월
주소 | 08100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신정동) 양천빌딩 별관 2층, 3층
Tel. 02-3788-8000 Fax. 02-3788-8099 www.mrtc.re.kr
인용 박민경·최서리. 2024. *국내 유학생의 졸업 후 체류 및 취업 의사.*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No. 2024-12. 이민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서울.

본 자료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본 이슈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MRTC)과 국제이주기구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ISSN 2982-9852